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

이영진,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을 읽고

홍석준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I. 책 소개 및 책 발간의 의의와 가치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매우 잘 쓴 책이다. 작가로서 저자의 글 솜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잘 쓴 책에 대한 서평을 하는 일은 그래서 조심스럽다.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제목은 죽음과 내셔널리즘이다.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의 죽음과 기억의 정치와 애도의 정치학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과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대해 이처럼 잘 쓴 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단지 내가 과문한 탓이기 때문에 립 서비스 차원의 미사여구로 치장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서평을 부탁받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서평만 읽어도 되는 ‘아주 잘 쓴 서평’을 쓰면 독자들이 서평만 읽고 정작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고, ‘아주 잘 쓴 서평’을 쓰지 않으면 독자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일독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서평만 읽어도 되는 ‘아주 잘 쓴 서평’은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일독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4년 ‘제1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위논문상’을 수상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죽음의 정치」(201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학위제출 논문)를 단행본의 구성에 맞게 대폭 수정·보완·재구성한 것이

다. 저자는 이후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죽음과 내셔널리즘, 특공, 위령, 특공위령, 죽음, 기억, 죽음과 기억, 기념, 현창, 애도, 죽음과 기억의 정치, 애도의 정치학 등의 연구주제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II. 이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이 책의 학문적 혹은 실천적 성과와 관련하여

이 책은 크게 제1부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서론에 해당한다.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조사 대상지의 선정 이유를 포함한 개관, 이 책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부는 연구의 시각과 이론적 쟁점들을 다룬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의 도입부로, 이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이 갖는 의미와 함께, ‘기억과 죽음의 정치’와 ‘애도의 정치학’(이영진, 2017; 이영진 외, 2017)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또한,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전쟁에서 죽은 자를 뜻하는 용어인 ‘전사자’와 ‘전몰자’, ‘영령’, 그리고 ‘애도’와 관련하여 소환되는 ‘위령’, ‘추도’, ‘현창’ 등의 의미를 둘러싸고, 전후 일본에서 전개되어 온 담론의 정치를 재구성한 장이기도 하다.

제1장은 ‘전후’라는 제하에, 모순으로서의 전후와 ‘전후’라는 시기 설정을 둘러싼 일본 내의 논의들에 대해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집합기억, 기억의 정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사자(死者), 즉 ‘죽은 자’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사자와 전몰자, 그리고 영령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해 다룬다. 제4장에서는 애도와 언어의 정치라는 제하에, 위령, 추도, 현창 담론의 지형도에 대해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메이지 시기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전사자 위령/기념의 문제를 고찰한다.

제1장에서는 국가와 전사자 위령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를 시도한다. 제2장에서는 전시기(戰時期) 일본 사회의 영령 제사와 유족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전시

기 일본 유족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역사적 측면에서 개관한 후, 전시기 유족들의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윌리엄스, 2009, 이영진, 2018: 14-15에서 재인용)를 통해 ‘감정의 공동체’ 탄생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이영진, 2018: 96, 99, 119), 이러한 감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균열되고, 봉합되는지 등에 관해 검토한다.

나아가, 여기에서는 야스쿠니 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것은 근대국민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특히 근대국민국가 수립 이후, 거의 10년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던 일본 사회에서 전사자를 위한 제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행사였고, 그중에서도 “야스쿠니신사는 전 일본 국민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이영진, 2018: 31). 일본 사회에서 야스쿠니신사의 전사자 제사가 중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야스쿠니신사의 제사 외에도 부대 내의 위령제, 지역사회의 공동 장례, 가족이나 친족 수준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 시기 일본 사회에서 전사자 제사는 실로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전쟁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의명분 역시 사라져버린 사회에서 전사자에 대한 위령/기념은 전후에는 전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으며, 그 의미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전쟁의 대의명분이 옳건 그르건 간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자는 국가의 이름으로 추도, 나아가 현창되어야 한다”(이영진, 2018: 178)는 명제에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과 이율배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전국의 입장인 데다가, 특히 지난 전쟁이 ‘해방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모순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전후 일본에서 1952년 전몰자추도식 이후 공식적인 전국전몰자추도식이 거행되는 1963년까지 걸린 10여 년의 세월은 이러한 모순,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전몰자추도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비판과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비판이나 정교분리 문제에 대한 비판 등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이영진, 2018: 178)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 사회는

지난 전쟁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사라져 버린 전사자를 위한 국가 주도의 위령/기념/추도/현장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간 별기’의 논리적인 모순과 이율배반성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4부에서는 전후 위령 전개 과정의 특징과 그 의미를 순국과 개죽음의 길항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찰한다. 제1장에서는 전후 위령의 출발이 갖는 의미를 패전 직후의 풍경에 대한 묘사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고집의 출간이 갖는 의미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일본유족회의 성립과 전국전몰자추도식의 출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특공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특공사’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 특공위령제의 전개와 특공위령의 성격, 병사의 위령제, 피해자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의 도피 등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내셔널한(national) 위령을 넘어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우선,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본 후, 특공사를 둘러싼 의문과 조선인 특공대원의 위령과 〈아리랑의 비〉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조선인 특공대원의 귀환이 좌절된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아리랑의 노래’ 의미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전사자 위령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검토로부터, 가고시마의 특공위령을 중심으로 위령/기념이 점차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제4부 제2장에서 저자는 자신의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가고시마 지역에서 행해지는 위령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재구성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동일한 특공위령제가 어떻게 지역별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방식으로 치러지는지에 주목하여, 전몰자에 대한 위령/기념을 국가가 독점하기 어려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전사자 위령/기념이 갖는 의미의 다층적이면서 다층적인 측면을 고찰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층위는 지난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전후 일본 사회의 다양한 해석들의 층위와도 중첩되는 것이다(이영진, 2018: 32). 특히 저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고시마에서 행해졌던 특공위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민족지적 고찰은 흔히 야스쿠니신사로 대변되는 중앙의 전사자 위령과 비교해 볼 때, 지역 차원에서는 그 위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이영진, 2018: 32). 또한, 현시점에서 이들 위령 행위의 다층적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전사자의 죽음을 국가의 영역으로 환원 또는 치환시켜 버리는 ‘내셔널한 위령’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제3장에서는 전후 일본에서의 특공위령과 기억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장으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인 특공대원이 표상되고 기억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저자는 조선인 특공대원에 대한 표상과 기억의 과정이 일본과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한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로, 지란 특공평화회관에 있는 특공대원의 명부에는 11명의 조선인 특공대원의 이름이 영정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특공평화회관 입구에는 지란에서 출격한 조선인 특공대원들을 위한 〈아리랑의 비〉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여 그 의미에 대해 기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와 같이 그 평가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조선인 특공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여전히 ‘친일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이영진, 2018: 32-33)고 지적한다. 최근에 들어 이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한국 학계에서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들은 조선인 특공대원에 대한 기억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혹은 이들 조선인 특공대원의 지원 동기 분석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기억되고 표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민족지적 서술과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영진, 2018: 33)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저자는 이들 조선인 특공대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 사회의 관심 및 현재 일본 사회에서 그들의 대중문화를 통해 소비되는 현상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한편, 그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와 그 의미에 대해 중요하면서도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조선인 특공대원’의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인 특공대원에 대한 비(碑)가 별도로 세워져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자체가 이들의 죽음을 보는 일본인들의 ‘불편한’ 심정과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아울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서평자가 보기에도 “〈아리랑의 비〉는 결코 일반적인 의미의 영령을 위한 현창의 비는 아니지만, 또한 그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 오히려 이 비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그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동정과 감상, 나아가 그들의 원혼이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산 자들의 두려움이 ‘흔적’처럼 새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영진, 2018: 264)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도 더 크다고 생각한다.

특공출격 전야,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아리랑〉을 구슬프게 불렀다는 한 조선인 특공대원의 65년 만의 귀환은 결국 좌절되었다고 한다. 영화 〈호타루〉(2002)가 영상으로 묘사하고 표현해 낸 것처럼 조선인 특공대원이 ‘반딧불’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과거와 화해하는 낭만적인 풍경은 적어도 현실에서는 연출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아리랑〉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후 57년이 지난 시점(영화 〈호타루〉가 개봉된 해가 2002년임)에 조선인 특공대원의 영혼이 반딧불이 되어 돌아온다는 설정 자체가 역사와 역사성에 대한 매우 안일한 해석일 뿐 아니라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자체가 역사의 상처를 너무 쉽게 봉합해 버리려는 의도와 계획이 담긴 시도일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전쟁 시기에 자신들을 신(가미)으로 치켜세우며 찬사를 아끼지 않던 일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국에서도 온전히 인정받거나 수용되지 못한 채 일본과 한국의 변방을 헤매고 떠돌고 있다. 이러한 ‘냉혹하고 냉엄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의 처지를 변호하는 목소리가 출현하는데, 이를 저자는 ‘시대의 희생자’(이영진, 2018: 249, 271) 논리라고 명명한다. ‘시대의 희생자’ 논리는 영화 〈호타루〉를 포함하여 조선인 특공대를 다루는 일본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논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5부에서는 특공에 대한 기억들이 ‘특공긴자’ 가고시마라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특공 성지’로 불리는 지란의 이미지 창출 과정에 대해 ‘감상적 낭만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기’라는 부제를 포함한 ‘특공 성지’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이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민족지적 서술과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이와 함께 지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특공의 기억에 ‘저항’하는 가고시마 지역사회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로 같은 주제로 민족지적 접근을 시도한다.

제1장에서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특공의 기억과 재현이라는 부제(副題) 아래, 산화(散華)와 난사(難死)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란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하에, 지란이라는 마을의 경관과 기억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지역의 역사(local history)와 지역 문화(local culture)에 주목하여 ‘특공 성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특공을 말하는 방식’이라는 제하에, 특공에 대한 산화와 난사 관련 내러티브들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지란이 만들어 내는 특공의 표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전쟁과 특공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내부의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하여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지난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에서 특공을 다시 생각해 보고, 지란 중심의 기존 특공 관광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들 모임이 만들어 낸 새로운 대안 답사 프로그램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전시기 가고시마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다룬다.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존재에 비해 거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한 문제를 저자는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제기한다.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 사회에 범람했던 특공대에 대한 낭만화, 달리 말해 기지에서 출격한 특공대원 개개인의 ‘로맨틱한’ 일화들과 그들의 헌신적인 애국심만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중문화적 소비의 토대를 이루는 감상주의를 넘어 특공의 역사 및 그 현재적 의미를 사회 현실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점 및 지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무수한 특공기들을 하늘로 날려 보낸

기지를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브레히트의 물음은 여전히 신선하고 유효하다고 진단한다(이영진, 2018: 35).

저자는 “‘특공기지’에서 ‘강제연행’으로”라는 물음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역사의 암흑에 묻혀 있던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강제연행이란 무엇이며, 강제연행의 역사 및 그 현재적 의미를 사실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 저자의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껍치는 기억과 엇갈리는 기억이 공존하는 가운데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그 많던 조선인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패전 이후 기억의 정치학을 소환해낸다. 하지만 패전 이후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기억의 정치학이 온전히 소환되지는 못했다는 의미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기억의 정치학은 끝나지 않은 여로(旅路)로 마무리되고 만다.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가고시마 각지의 특공비행장 건설 현장에는 강제연행되어 온 수많은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고시마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과 같은 소수의 불교계 중심의 시민운동단체를 제외하곤, 강제연행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고 올바른 진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전쟁에 어떻게 휩쓸려 들어갔는가,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 주민 전체가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역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구 식민지나 점령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강제연행되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등과 같은 문제를 직시하려는 노력은 특공이라는 문제를 통해 ‘평화’를 생각하고 또 계승하고자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저자는 조선인 특공대원,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 지역주민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이들을 ‘감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특공사를 둘러싼 기억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가해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주장하는 것,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사죄하는 국민 주체로 안이하게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영진, 2018: 381-382).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올바른 것이다(곽귀병, 2018: 243 참조).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체로서 조선인 특공대원을 발굴, 개발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나는 저자의 이러한 입장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6부는 결론에 해당한다. 제6부에서는 이 저서의 내용과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결론적으로 죽음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의 귀환과 그들에 대한 애도와 애도에 대한 거부, 회환과 분노, 그리고 원한의 정치의 특징과 의미, 나아가 해원(解冤)의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이영진, 2018: 383).

제6부 결론에 이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론에서는 전후 일본 영화에 비친 특공의 표상이라는 부제하에, 전후 특공의 표상이 광신과 애국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양자 간의 상호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고찰한다.

III. 앞으로의 기대와 향후 과제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책은 전후 일본의 전사자 위령/기념에 대한 매우 훌륭한 인류학적 고찰에 기반한 민족지적 보고서이다.

특공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비극성과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 비극성의 원천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 그러한 목적이 조직화된 작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수천 명의 학도병과 소년항공병이 그 무모한 작전에 동원되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특공의 죽음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령/기념/추도/현창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그들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성스럽고 유의미한 ‘순국’인가, 아니면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에 동원되어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간 ‘개죽음’에 불과한 것인가.

이 책은 특공의 죽음이 내포하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에 주목하여, 전사자에 대한 기념/현창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국민국가의 논리를 넘어서, ‘산자는 죽은 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라는 윤리적·실천적 물음을 제기하

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저자는 과거 특공기지였던 가고시마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특공에 대한 위령/기념이 전개되어 온 양상과 그 과정의 의미를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실천이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외부’ 또는 ‘바깥’이 아닌 ‘내부’ 또는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인류학적 통찰을 시도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책의 의의와 가치는 크고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의 말대로, 근대 일본의 전사자 위령/기념의 특징과 전후의 전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물음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죽음/죽은 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라는 윤리적·실천적 물음이 그것이다(이영진, 2018: 35-36). ‘내셔널한’ 죽음과 위령에 대한 비판은 그 ‘너머’에 대한 하나의 상(象)까지 제시했을 때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학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인류학에서 명확하게 또는 완벽하게 제시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의 결론은 ‘잠정적’”(이영진, 2018: 36)이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포기한다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운 과제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할 것”(이영진, 2018: 36)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동감을 표하고 싶다.

저자는 제1부 마지막 부분에서 “내셔널한 위령, 혹은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애도’ 행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실천과 사유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던 이 책의 시도는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이영진, 2018: 36)고 말하면서, “나아가 전쟁 말기 이국의 땅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음에도 정상적인 장례와 상례를 치르지 못한 채, 광복 이후에도 일본과 한국 그 어느 쪽의 ‘애도의 공동체’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 이역의 구천과 어둠의 골짜기를 떠돌고 있는 ‘조선인 특공대원’ 또는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원한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약하지만 학문이 할 수 있는 ‘해원’(解冤)의 한 수단일지도 모른다.”(이영진, 2018: 36)라는 의미심장한 고백(?) 혹은 고해성사(?)를 남기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이역만리를 떠돌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이른바 ‘학문적 언어’는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이영진, 2018: 383)라는

질문, 나아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령/기념/추도/현창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이고, 구했더라도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 또는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러한 과정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유명처럼 떠돌고 있는 이들의 해소되지 않은 ‘원한’과 ‘분노’라는 느낌과 정서에 좀 더 적합한 언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통한 해원으로 읽힐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하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곱씹어 반성적 성찰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나아가, 저자는 가장 고전적이면서 전통적인 인류학적 연구 방법과 방법론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반성적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지조사의 고전적인 ‘참여(participation, participant)’와 ‘관찰(observation)’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영진, 2018: 16). ‘참여’와 ‘관찰’을 하나로 묶고 연계하여 ‘참여관찰’이라고 친숙하게 사용해 왔던 인류학적 방법론 내부의 긴장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서 재고를 요한다는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나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저자는 일종의 ‘이방인’(이영진, 2018: 18-20 참조)으로서, ‘그곳’과 ‘이곳’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수집, 정리한 미시적 자료와 거시적 담론을 한데 묶어 새롭게 해석해 내는(기어츠, 2014), 이른바 ‘양능(兩能)의(ambidextrous)’ 능력과 자질을 이 책을 통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권현익, 2012; 2016 참조).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저서를 저자가 일본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분석한 자료들을 해석, 재해석하여 민족지적 텍스트로 생산해 내는, 이른바 ‘양능의’ 인류학자(ambidextrous anthropologist)와 현지조사자(fieldworker) 혹은 지역전문가(area specialist)로서의 통합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책으로 평가한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 전후 일본 특공위령의 죽음과 기억의 정치와 애도의 정치학에 관한 인류학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 또는 박물관과 같은 전문 학술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의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특공위령의 죽음과 기억의 정치와 애도의 정치학이 지닌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내게 많은 지적, 실천적 자극을 선사해 준 책으로, 아주 오랫동안 나의 뇌리와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는 일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투고일: 2019년 7월 9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곽귀병. 2018. “특공의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회와역사』 119, 241-251.
- 권현익 지음·유강은 옮김. 2012. 『학살, 그 이후』. 파주: 아카이브(Archive).
- 권현익 지음·박충환·이창호·홍석준 옮김. 2016.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부산: 산지니.
- 이영진. 2017. “근대성과 유령: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의 정치를 넘어서기.”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서울: 도서출판 길.
- 이영진. 2018.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영진 외. 2017.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서울: 도서출판 길.
- 클리퍼드 기어츠 지음·김병화 옮김. 2014.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에빈스 프리처드, 말리노프스키, 베네딕트』. 파주: 문학동네.
-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 2002. 〈호타루〉.